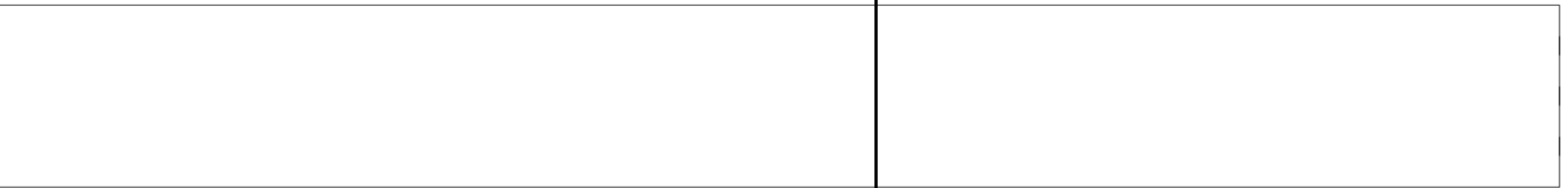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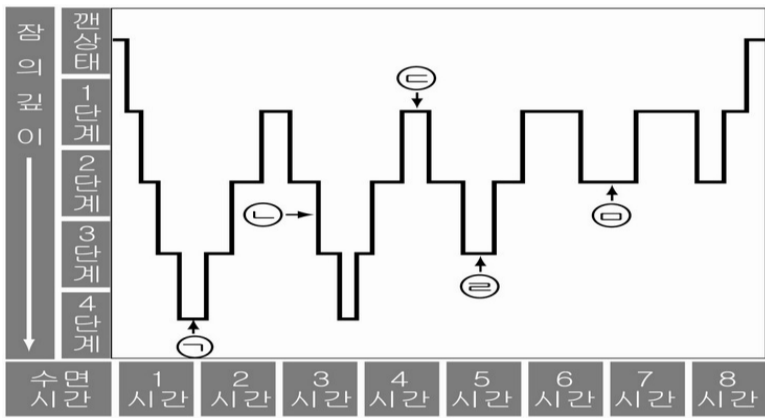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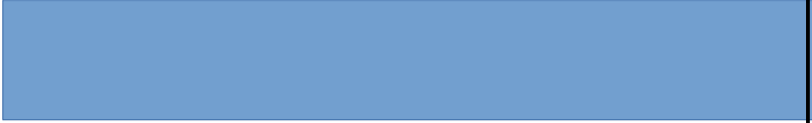


언어영역

1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지는 모두 2 점씩입니다.



언어영역



(가)

우리의 구들은 열을 저장하여 저장된 열을 지속시키는 난방 방식인데 서양의 대표적인 난방 방식인 벽난로는 불이 타고 있을 때만 따뜻하고 불이 꺼지면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구들 난방 방식에서는 한 번 불을 때면 구들장에 저장되어 오랜 시간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방이 따뜻해졌다가 식을 때가 되면 다시 불을 때어 구들장을 가열하고 열을 저장하는데, 서양의 벽난로가 일시적 난방 방식이라면 우리의 구들은 지속적 난방

방식인 것이다.

<검토 결과>

- ㉠ 필요한 문장 성분을 빠뜨렸다.
- ㉡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많다.
- ㉢ 접속어가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 ㉣ 문장의 호흡이 길어 읽기에 불편하다.
- ㉤ 동일한 의미를 지닌 구절이 중복되었다.

(나)

우리의 구들은 열을 저장하여 지속시키는 난방 방식이다. 서양의 대표적인 난방 방식인 벽난로는 불이 타고 있을 때만 따뜻하고 불이 꺼지면 열기가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구들 난방 방식에서는 한 번 불을 때면 열이 구들장에 저장되어 오랜 시간 방을 따뜻하게 만든다. 방이 식을 때가 되면 다시 불을 때어 구들장을 가열하고 열을 저장한다. 서양의 벽난로가 일시적 난방 방식이라면 우리의 구들은 지속적 난방 방식인 것이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고은, 눈길 -

- 이육사, 광야 -

언어영역

- 김소월, 먼 후일 -

- 김용호, 눈오는 밤에 -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곳에 가재와 굴뎡이가 서로 이웃해서 살았다. 그런데 가재는 수염이 있는 대신 눈이 없고, 굴뎡이는 눈이 있는 대신 수염이 없었다. 그래서 길으로는 "이 위엄 있는 수염, 어힘.", "이 밝은 눈은 어땡고?"하며, 서로 제 것을 자랑했지만, 가재는 굴뎡이의 밝은 눈이 탐났고, 굴뎡이는 가재의 위엄 있는 수염이 부러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은 그 수염과 눈을 바꾸기로 했다. 먼저 굴뎡이가 제 눈을 빼서 가재에게 주었다. 가재가 굴뎡이의 밝은 눈을 받아 달고 보니, 세상은 더 없이 환하고, 저의 수염은 더욱더 위엄 있게 보였다. 그래서 가재는 저의 그 위엄 있는 수염을 굴뎡이에게 줄 생각이 없어졌다. 굴뎡이는 가재가 그 수염을 선뜻 내주지 않자, "왜 이렇게 꾸물대는가?"하고 다그쳤다. 그러자 가재는 "눈도 없는 놈이 수염은 달아서 무얼 해?"하고는 그냥 가 버렸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 본 개미는 굴뎡이의 하는 짓과 그 당하는 꼴이 너무도 우스워서, 그만 웃고웃고 하다가 허리가 잘록해졌다.

- 중 략 -

가재와 굴뎡이 이야기를 듣고 이쯤 생각하는데, 어디선지 자지러지게 웃어대는 개미의 웃음소리가 들려 왔다. 순간 알미운 생각이 번뜻 들었다. 아니 껄썩했다. 굴뎡이의 무지와 경박(n?)은 허리가 끊어지게 ㉠웃어대는 놈이 어찌하여 가재의 배신과 모순에 대해선 일언반구(??? ㄱ) 말이 없는가? 더구나 배신과 모순은 부도덕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도 말은 고사하고 손가락질 한 번이 없다. 그렇다면 개미란 놈은 왜 그토록 편파적(???)이었을까? 굴뎡이의 무지와 경박이 하도 우습다 보니, 가재의 배신과 모순은 미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약간의 상상을 보태 보자. 만일 굴뎡이에게 예민한

촉각과 날카로운 이빨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럴 때도 개미란 놈이 그토록 편파적일 수 있었을까? 굼벵이는 처음부터 개미가 두려워할 만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했다. 게다가 이제는 눈까지 없다. 그러므로 백 번 웃어 주어도 보복 당할 염려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재는 그렇지 않다. 옆걸음을 쳐도 개미보다는 빠르고, 이제는 밝은 눈까지 달았으니 숨을 수도 없다. 잘못 보였다가는 언제 그 예리한 집게발에 허리가 잘릴지 모른다. 개미는 이런 것을 잘 알았을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굼벵이의 무지와 경박을 비웃으려는 게 아니었다. 가재의 배신과 모순을 질타(??)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다소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개미의 간악한 편파성을 꾸짖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개미는 가재의 잘못을 질타했어야 한다. 보복이 두려워 그러지 못했다면, 굼벵이의 어리석음도 비웃지 말았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제는 더 꾸짖을 용기가 나질 않는다. 아니, 앞에서 몇 마디 꾸짖은 것도 오히려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개미란 놈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 나에게 샷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다. "이봐요, 정 선생. 내가 당신에게 보복할 만한 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매도하는 거요? 호랑이가 나처럼 했어도 이럴 거요?"

내 발이 저리니 어떻게 더 개미를 꾸짖겠는가?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옛말이 있다. 내가 개미를 꾸짖은 말이 나를 꾸짖는 말로 돌아오다니, 참으로 말의 어려움을 알겠다. 그럼 어찌할까? 호랑이를 꾸짖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까지는 꾸짖는 일을 삼갈 수밖에 없다.

- 정진권, 개미론 -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에서 마땅히 한 집안의 살림을 적당히 측량하여 농토 몇 부(?)

언어영역

를 한정하여 한 집의 영업전(???)으로 만들어 주되, 당(ば)나라의 조세 제도처럼 해서 농토가 많은 사람의 것도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더 주지 아니하며, 돈이 있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백 결(??), 천 결(??)이라도 모두 허락하고, 농토가 많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전 몇 부를 제외하고는 역시 허락하며, 많아도 팔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제로 팔도록 하지 말고, 모자라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독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영업전 몇 부 내에서 사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재지에서 사실을 밝혀, 산 사람은 남의 영업전을 빼앗았다는 죄로 다스리고 판 사람 역시 몰래 판 죄로 다스리되, 산 사람에게는 값은 관계없이 되돌려주게 하고, 판 사람에게는 스스로 관부에 나가서 고하여 죄를 용서받고 자기 농토를 되돌려 받도록 한다.

무릇 농토를 사고 파는 것은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관부에 보고한 뒤에 매매하도록 하고, 관부에서는 전적(??)을 상고한 뒤에 문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도록 하며, 도장이 찍히지 않은 문서는 소송도 받아 주지 않으면, 비록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도 두고두고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한 마을을 보니, 작년에 몇 가호(??)가 파산하였고, 금년에도 몇 가호가 파산하였다. 파산한 자들은 처음에는 많았던 농토가 점차 적어지더니, 나중에는 적은 농토마저 잃게 되었다. 이미 농토가 없어졌으니, 어찌 파산하지 않겠는가?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농토를 팔지 못하도록 하면 파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겸병(B?)하는 자도 감소될 것이다. 가난한 백성이 혹 지혜와 능력이 있어 농토를 사게 되면 한 자의 땅을 사든, 한 치의 땅을 사든 사들이기는 해도 파는 일은 없으므로 쉽게 부흥하게 되며, 부유한 백성은 농토가 비록 많으나 혹은 자손들이 많아 나누어 소유하거나, 우매한 자손이 가산을 탕진하여 불과 몇 대 만에 평민들과 동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점차로 □균전 제도(m²???)가 완성될 것이다.

가난한 집은 당장에 재산이 없어지는 걱정이 없을 것이니, 참으로 기뻐할 것이고, 부유한 가정은 비록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영업전만은 남아 있을 것이니, 부유한 사람으로서 후일을 염려하는 자 역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행하기가 쉬우며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균전의 대략이다.

-이익, 논균전(m²?)-

*소봉(??) : 영토는 없어도 제후와 비등한 수입이 있는 부자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있는 그대로를 세밀하게 묘사하려는 성향은 또한 중요하지 않은 시시콜콜한 일까지 장황하게 그려내는 경향을 동반한다. 그리하여 판소리의 묘사 부분은 서사의 진행 과정상 (㉠)과 비슷하다. 서사의 진행상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전체 서사 진행에서 이런 부분들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매우 사소한 이야깃거리지만 판소리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맛나고 재치 있게 함으로써 판소리를 음악적으로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당대에 새롭게 등장한 사유 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대상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은 풍속화에서도 선호하는 것이다. 단원의 일련의 풍속화첩들을 보면 인물이 화면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길 가는 행상 두세 명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삼현육각을 원으로 배치하고 한 무동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 따라서 인물이 입은 옷자락의 선 하나까지도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을 수 없다. 인물의 눈동자 하나까지도 의미있게 처리할 정도로 섬세하게 그리는 것이다.

대상의 정밀 묘사는 당시 화단에 성행하던 화풍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련의 초상화들은 얼굴과 옷차림새를 있는 그대로 극세필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주의적 정밀 묘사는 임금 행차시의 행렬도나 계획도, 그리고 연회도와 부사나 감사의 부임도와 같은 기록화에서도 행해진 전통으로서, 당시 화단에는 이러한 즉물사진적인 화풍이 상당히 번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상에 대한 동적인 묘사 방식도 풍속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원의 일련의 풍속화를 보면 거의가 동적인 순간을 확대경을 통해 포착해 놓은 것들이다. 움직임의 기운을 듬뿍 담은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삶의 활력이 느껴진다. 이러한 점은 문인화의 전통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문인화에도 인물이 그려지고는 있으나 그것은 자연 속의 미세한 부분으로 그려졌고,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게 처리되었으며, 그것도 정태적인 자세로 자연을 관조하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존재로 포착되었다. 그러나 풍속화에서는 자연이 생략되거나 아니면 배경으로 멀리 물러나고 인물이 화면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 인물은 무엇을 관조하거나 감상하는 관념적이고 정태적인 모습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일하는 인물 군상이다. 그리고 그 인물들 중 대부분은 당시 사회에서 생산 활동을 ㉡맡던 서민 또는 천민인 점도

중요한 내용이다.

판소리와 풍속화에서 볼 수 있는 사실주의적 정밀 묘사는 조선 후기, 특히 영·정조 당시에 성행한 표현법이다. 그러한 표현 방식은 우리의 산하와 인간들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진경 문화의 바탕 정신과 연관될 뿐 아니라 당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실학의 정신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언어영역



강물을 손으로 떠서 낮을

밝은 달이 검은 구름 속에 잠긴 듯, 푸른 물의 붉은 연꽃이 흠비를 머금은 듯, 가련하고 슬픈 모습 차마 보지 못할레라.

씻더니,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무인(?) 적막한데 난데없이 표주박 같은 배 한 척이 강 위로 떠오더니, 한 선녀가 선창 밖으로 나와 원수에게 예(?)를 올리고, 비단 주머니를 끌러 과일 두 개를 주며 말하되,

태자가 호국에 잡혀가서 동문 큰길가에 온갖 형구를 갖추고 자객을 재촉하여 검술을 희롱하니, 황후의 귀한 생명이 경각(K')에 달려 있는지라. 장군은 어찌 급한 것을 모르고 빨리 가지 아니합니까?"

, 봉의 눈을 부릅뜨며, 일광주와 용린갑을 단단히 졸라매어 장성검을 빼어 들고, 천사마를 채찍질하여 나는 듯이 들어가니, 동문 밖 십 리 백사장에 군사가 가득하였거늘, 말다래를 급히 열어 조총(?)을 잠깐 꺼내어 대한고를 한 번 놓으니 우레 같은 함성 소리가 푸른 하늘의 밝은 해를 뒤흔드는 듯, 호왕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13 세라, 호왕에게 호령하여 하는 말이,

복시켜 신하를 삼을쏘냐? 군신(-?)의 분수와 의리를 논하건대, 황제는 백성의 아버지요,

황후는 백성의 어머니라. 너는 만고의 역적놈일 뿐이다. 모두들 황

수레 위에 높이 실어 동문 큰길가로 나오니, 깃발과 창검이 삼대같이 늘어선 있는데, 총용

대장이 높이 앉아 자객(?)에게 상을 주고 검술을 희롱할 때,

들에 엮어져 땅을 헤비며 소리를 놓아 통곡하기를,

길에 ㉠주인 잃은 혼백이 된단 말인가. 피골 상련(???) 이내 몸은 되놈에게 자식 잃고,

청춘 소부(????) 내 며느리 되놈에게 ㉡남군 잃고, 혈혈 단신(???)

이?) 내 손자 되놈에게 ㉢아비 잃었는데, 만 리 호구 험한 땅에

누구를 보려고 여기 왔다가 세 몸이 한 몸이 되어 자객의 손에

죽게 되니, 천만 년이 지나간들 이런 변을 다시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아들 도적에게 황성(?)을 잃고 정한담을 피하여

북문으로 도망하더니, 죽었는가 살았는가. 혼백이나 동동 떠서

높은 어미 죽는 줄을 귀신이야 아련마는 아득한 구름 속에 사람

의 말을 듣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비탄하며 입어 내 양악산 면을 비껴고 나군 살릴 해나도 없네 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산 신령은 대명국 황성에 급히 가 우리

유 원수를 찾아 내 말을 전하되, 대명국 황태후가 불쌍한

며느리와 어린 손자 목을 안고 깃발과 창검이 늘어선 백포장

(???) 장막 안에 자객이 나열해 있는데, 세 몸이 한 몸 되어

금일 오시(???)만 지나면 무죄한 세 목숨이 창검 끝에 사라질

것이라고 속히 전해 주오."

세라. 옥빈 흥안(□??) 고운 얼굴, 월태 화용(????) 귀한 몸이 여러 날 잠 못 자고 굶어서

형용이 초췌한 중에, 호왕이 잡아낼 때 흉악한 군사놈이 억지로

끌어내어 얼굴 가득히 피가 흐르고 옷이 남루하니, 푸른 하늘의

갑하여 주저주저하던 차에, 천사마가 눈을 한 번 깜짝이며, 동문 밖 큰길가

장성검이 번쩍 빛나니, 넓은 백사장에 다섯 줄로 늘어선

기마병들을 씨 없이 다 베고 성으로 달려가서 대궐 문을 깨부수고

대궐 안의 만조 백관을 단칼에 무찌르고, 용상을 깨뜨리며 호왕의

머리를 손에 감아쥐고 동문 밖 큰길로 급히 오니, 이 때 황후,

태후, 태자가 자객의 칼날 끝에 혼백이 흩어져서 기절해 있는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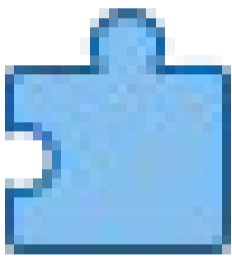
원수가 급히 달려들어 태자를 붙들어 앉히고 황후와 태후를

흔들어 깨우니, 한나절이 지난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거늘 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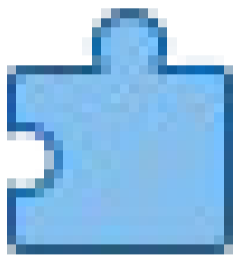
땅에 엎드려 여쭙되,

원 대장 앞에 엎드렸거늘, 다시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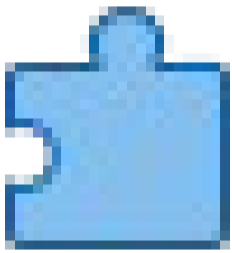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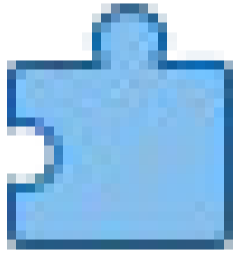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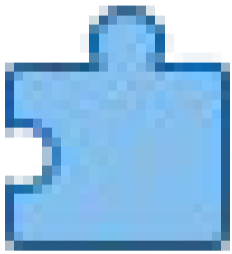
-



-



-



-

37. ㉠~㉣ 중, 지시 대상이 다른 하나는?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한때 자동차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믿었다. 만약 지금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인간적 감수성과 이성적 능력에 대하여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도시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교통 혼잡과 교통 체증을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단순히 '축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 혼잡과 체증 현상은 개인 수송 수단의 보편화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이다. 일부 사람들만이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자동차는 확실히 편의와 쾌적함을 보증하는 수송 수단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거리로 나왔을 때 자동차는 한없는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는 원흉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자동차의 소유와 운전을 제한하는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없다. 왜냐 하면 자동차가 증가하는 사회는 이미 개인적 자유에 대한 욕구가 팽배한 사회인 만큼 이것을 강제적으로 억누르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소수의 특권적인 향유물로 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자동차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성장 위주의 산업 경제가 존속하는 한 자동차의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불편은 필연적이다. ㉠도로의 확장이나 신호 체계의 개선 등 사회 간접 자본의 더 많은 투입과 정책, 기술 개발에 의하여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극심한 혼잡과 정체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이론가 앙드레 고르쓰는 개인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비유를 든 바 있다. 즉,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망 좋은 해변에 저마다 별장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닷가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유 별장이 들어설 때 그것은 이미 별장으로서의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라는 편리하고 쾌적한 수송 수단 역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사적 수송 수단이 될 때 본래의 기능이나 편리와 쾌적함은 소멸될

언어영역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원리 때문이다.

자동차가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인간 생존의 근원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오직 인간의 왜곡된 욕망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대표적 폭력 기술이라는 점에 있다. 오늘날 산업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술 체계로서 원자력 발전, 텔레비전, 컴퓨터 기술 등을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자동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동차가 산업 체제 속에서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모든 산업 기술이 본질적으로 그러하듯이 자동차 기술은 ㉡부분적인 합리성과 전체적인 비이성(???)의 결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기술이다. 현재 인류 대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산업 문명 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생활 방식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다. 산업 체제는 무한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며, 처치 불가능한 쓰레기를 끊임없이 쏟아낼 뿐 아니라, 인간 생존의 자연적 토대인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파괴한다. 자동차는 바로 그러한 산업 체제의 핵심이며 따라서 인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켜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 중 략 -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언어영역

11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이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 중략 -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날 안에 무슨 뽕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걸 우리 집이야."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으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다."

영호가 말했다.

"그만 뒤."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별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언어영역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인간만이 배울 수 있다. 비교적 지능이 발달해 있다는 침팬지 같은 짐승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치려는 실험을 많이 하였지만 인간이 성취해 내는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만 세 살 정도밖에 안 되는 몽매(??)한 나이에 전화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모어(??)에 유창해진다. 나이가 든 뒤에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찢찢맨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어린이의 언어 습득 능력이 얼마나 신비한 능력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두뇌 속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언어의 습득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언어의 습득은 인종(??)이나 지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일단 배우고 난 뒤에는 그것을 일상 생활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마치 자전거나 스케이트를 한번 배우고 나면 그 뒤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탈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언어를 이처럼 쉽게 배우고 또 사용하고 있지만, 언어사용과 관련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극히 간단한 언어 표현에 관한 문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만도 엄청난 양의 사고 과정(? 3 vi?)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27의 제곱은 얼마인가?"와 같은 계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면 안 되면서도,

"너는 냉면 먹어라. 나는 냉면 먹을게."

와 같은 문장은 어딘가 이상한 문장이라는 사실, 어떻게 고쳐야 바른 문장이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심각하게 따져보지 않고도 거의 순간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 문장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일반인으로서의 매우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 국어의 문법 현상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중략 -

언어는 개방적이고 무한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반드시 보았거나 들은 것, 존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용, 봉황새, 손오공, 유토피아……'같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상상의 산물이나, 나아가서는 '희망, 불행, 평화, 위기……'라든가, '의문, 제시, 제한, 효과, 실효성……' 등과 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를 거의 무한에 가깝게 표현할 수가 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상이나 추상의 세계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까지 사고할 수 있지만, 사실 언어는 가장 간단한 것조차도 그것이 가리키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 분절성(???)이라고 한다.

언어영역

????(잔월 효성)이 아라시리이다.

덕시라도 님은 한대 녀져라 아으

벼기터시니 뉘러시니잇가.

vi(과)도 허믈도 ??(천만) 업소이다.

니미 나를 하마 니자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

(나)

??? (이화우) 흘뿌릴 제 울며 잡고 ?? (이별)한 님

??②?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랑의 시조 -

(다)

님다히 ?쇼?식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날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가. 내 마음 둘 대 업다 어드러로 가쟈 말고.?

일?월을 엇디 보며 ?지?척을 모라거든 ?천?리랄 바라보랴.

찰하리 물가의 가 배길히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터이고. 샹공은 어대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 강?

턴의 혼자 서셔 디난 해를 구버보니 (㉠)?모□첨 찬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은 놀 위하야 밧갓난고.

ㅂ계?성의 잠은 엇디 깨뉘던고.

- 정철, 속미인곡 -

*말히마리신데 : 못사람들의 참조하는 말입니다.

*살웃븐데 : 슬프구나(또는 사뢰고 싶구나, 사라지고 싶구나)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님를 그리워하여 우니다니

?(산)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달 아으

언어영역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는 오랜 세월을 지내 오면서 수없이 많은 질병을 경험하고 이와 싸우는 동안 괄목할 만한 의학의 발전을 이룩해 왔다. 수없이 많은 의술과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이들 중 어떤 것은 각광을 받다가 사라졌고 어떤 것은 꾸준히 인류의 건강 증진에 공헌해 오고 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도구는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지혜요, 능력이며 그러한 혜택을 제한 없이 ㉠누리는 것이 인류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 기술과 도구를 구분해 놓고 서로 상대방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학은 기술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서 의술은 고치는 기술인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학에 얽힌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예로부터 많은 기술과 이론을 동원하였다. 어떤 때는 무속의 의식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종교적 설명을 ㉡ 이끌어들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철학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것을 의술에 접합시킨 것이 동양 의학이요,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것이 서양 의학이다.

서양 의학에서는 인체의 기본 단위를 세포로 본다.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건강'이라고 부르고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상태라면 '병'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모든 병의 근원을 세포에서 찾는다. 세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병적인 상태이며, 또 세포의 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낱개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거나 위축되는 것도 병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세포의 변화를 종양, 결손, 염증, 퇴행성 변화로 나누어 이런 병명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 임상적 병명을 붙이게 된다. 예를 들어 염증이 관절에 생기면 관절염이요, 신장에 생기면 신장염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병에 대한 서양 의학적 관점은 다분히 해부학적이며 과학적이다.

그렇다면 동양 의학의 관점은 어떠한가? 우리 몸 안에는 항상 몸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자연 치유 에너지가 내재해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기(氣)'다. 기의 기능이 정상적이면 이를 '건강'이라고 부르고, 기의 기능이 비정상적이면 이를 '병'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기의 부조화만 있고 아직 기질적 변화가 오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가 더욱 진행되면 세포의 기질적 변화까지 생겨 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기가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제 1단계, 기의 부조화 상태를 제 2단계, 기질적 변화를 제 3단계라고 한다면, 제 2단계인 기의 부조화 상태가 바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이 병에 대한 동양 의학적 관점으로 다분히 가설적이며 철학적임을 알 수 있다.

병의 발생 과정은 가스 파이프에 비유할 수 있다. 처음에는 파이프가 깨끗하고 단단한 상태이나(제 1단계), 가스 파이프에 녹이 슬거나 구멍이 뚫리면 가스가 새게 되고(제 2단계),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언젠가는 화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제 3단계). 그런데 녹이 스든가 가스가 샌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과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를 진화하는 방법은 다르다.

병인(??)과 치료 면에서 제 2단계를 중시하는 것이 동양 의학이요, 제 3단계를 중시하는 것이 서양 의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은 병인을 보는 관점과 그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른 것일 뿐 별개의 존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을 별도로 인정하는 의료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둘을 녹여서 새로운 의학으로 창조해야 한다. 흔히 서양 의학에서는 동양 의학을 과학적 연구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고, 동양 의학에서는 서양 의학을 인간의 건강을 전 우주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철학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서 그저 한 의학의 두 측면일 뿐이다. 그러므로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종합 의학으로 비상하게 될 것이다.

언어영역

확인하시오.